Henry V'(1956) 등 수 많은 저서와 논문들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Walker 또한 여망에 부응하는데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녀 또한 이제 연로하여 이를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그 사이에 Wilson의 New Shakespeare는 1966년 *Poems*로 완결되었고, New Arden Shakespeare 역시 난산이던 *Hamlet*가 1982년에 나옴으로써 이 역시 거의 끝나간다. New Penguin Shakespeare, Pelican Shakespeare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Alexander, Sisson, Evans의 single-volume Shakespeare edition도 나왔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International Shakespeare로 이름할 미국의 Old-Spelling Shakespeare edition이 J. Leeds Barroll의 감수로 진행중이라고 한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Oxford 대학출판사의 좌절감이 어떠했으리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아직 그것의 Old-Spelling Shakespeare가 가까운 장래에 탄생한다는 전망이 없다. 그러나 최근에 일련의 좌절감을 딛고 일어나 Oxford 대학출판사는 또 한 차례의 큰 시도를 했다. 즉 S. Wells를 general editor로 삼고 이 출판사는 1978년 1월에 Shakespeare Department를 설립하고 두 가지의 modern-spelling Shakespeare edition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는 W.J. Craig의 one-volume Oxford Shakespeare edition을 대체하는 Oxford Standard Authors Series를 위한 새로운 single-volume edition이고, 또 하나는 Oxford Engligh Texts Series를 위한 'one play per volume' 식의 multi-volume으로 된 'detailed scholarly edition'이다.

이 두 edition의 act, scene, line reference는 Alexander의 edition에 따르고, 행의 일련번호('through line numbers')는 Hinman의 Norton Facsimile of the First Folio(1968)를 따르게 된다. 그리고 Wells는 Gary Taylor를 associate editor로 G.R. Proudfoot를 textual adviser로, F.W. Sternfeld를 음악고문으로, 기타 H. Gardner, D. Bradley, N. Davis, K. Muir, H.J. Oliver, G.W. Williams, T. Berger, Peter W.M. Blayney, Mrs Lesley Burnett 등을 특별고문으로 그리고 S. Schoenbaum을 single-volume edition의 co-editor 및 multi-volume edition의 American advisory editor로 팀을 짜놓고 있다. format를 달리하는 이 두가지 Oxford Shakespeare의 동일한 두 극작품들의 본문들은 서로 다른 편집의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치할 수 없게 되었다.

Oxford 대학출판사의 이와 같은 계획이 알려지기가 무섭게 Cambridge 대학출판사는 New Shakespeare가 완성된지 12, 3년 밖에 안 되는 1978년에 말하자면 'New' New Shakespeare인 'New Cambridge Shakespeare'를 기획하게 되었다. Cambridge는 Philip Brockband를 general editor로 하고 Brian Gibbons, Benard Harris, Robin Hood를 associate general editors로, Royal Shakespeare Company의 Maurice Daniels를 theatre adviser로 팀을 구성하고 'one play per volume' Shakespeare edition을 착수하기에 이르렀다. 1978년 11월에

정, 부 general editor들을 포함한 P. Edwards, R. Foakes, G.B. Evans 등 세계의 권위자 26명과 30권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보통 이상으로 복잡한 극작품들은 supplementary volume들을 총서로 갖게 될 것인데, 이는 사실상 Dover Wilson의 편집으로 Cambridge 대학 출판사가 발행하던 'Shakespeare Problems' Series의 부활로서 'New Cambridge Shakespeare Studies and Supplementary Texts' Series로 이름될 것이다.

Cambridge 대학출판사는 1979년에 38 페이지의 *Editorial Guide and Specimen Pages* 란 pamphlet를 내고 새로 나오게 될 'New' New Shakespeare를 크게 광고했다. 이것의 서문은 Wilson이 완성한[27] 현대철자로 된 New Shakespeare가 큰 기여를 했지만 이 series를 단순히 보완, 개정하는 정도가 아닌, 그것을 재편집하고 재디자인을 해야할 때가 왔다고 선언했다. 그렇다고 이 new edition이 모든 점에서 old edition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critical taste와 insight의 변화, 최근 Shakespeare scholarship의 발견들, 극 이해에 중요한 변화하고 있는 의미 등에 부응하여 'fresh and distinctive contribution'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출발한다고 했다. 30 여년 전에 큰 기대를 불러일으켰던 서지학적 연구의 발달은 계속 본문전달의 복잡성을 밝혀주고 있으나 결정판적인 본문이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고 조심스럽게 말하면서 서문은 본문의 'authoritative presentation'에 접근할 수 있는 희망은 아직 가질 수 있다고 역시 조심스러운 낙관을 피력하고 있다.

1. The present modern-spelling Cambridge Shakespeare, *The New Shakespeare*, began publication in 1921, under the general editorship of Sir Arthur Quiller-Couch and John Dover Wilson, and was completed in the nineteen-sixties, with the assistance of G.I. Duthie, Alice Walker, Peter Ure and J.C. Maxwell. It has won a large public, and high esteem both for its scholarship and for its design.

2. While acknowledging the value of the contribution made by John Dover Wilson and his colleagues in *The New Shakespeare*, it is recognised that the time has come to re-edit and re-design, and not merely to revise, the series. The new edition may not in all respects displace the old, but, responding to shifts of critical taste and insight, to the findings of Shakespearean scholarship in recent years, and to a changing sense of what is important to an understanding of the plays, it is hoped that the *New Cambridge Shakespeare* will make a fresh and distinctive contribution.

3. The developments in bibliographical studies, which excited high expectations some thirty years ago, continue with increasing refinement to chart the complexities of textual transmission. Few would claim that they bring us in sight of a definitive text, however; for it is now clear that objective modes of analysis can only assist, and not displace, editorial judgement. We may nevertheless still hope to approach an authoritative presentation of the text. ('Preface', p. i.)

27) Dover Wilson은 New Shakespeare의 40권 중 대부분을 단독으로 편집했고, 다만 *Romeo*와 *Lear*는 G.I. Duthie와 공동으로, *Troilus*는 A. Walker와 공동으로 했으며, 남에게 거의 의존하다시피 한 것은 J.C. Maxwell의 *Pericles*, *Timon*, *Cymbeline*, *Poems*와 Walker의 *Othello* 뿐이었다.

V

한편 Cambridge의 *Editorial Guide and Specimen Pages* 보다 시간상으로 앞섰는지 뒤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같은 해인 1979년에 Oxford University Press도 Wells로 하여금 Modern-Spelling Oxford Shakespeare의 편집방침을 밝히는 글을 쓰게 하여 낸 것이 36페이지(서문 3 페이지를 제외하고)의 *Modernizing Shakespeare's Spelling*이다. 여기에는 Gary Taylor의 'Three Studies in the Text of *Henry V*'(pp. 39-164)가 첨부되어 있다. Wells의 것은 multi-volume edition(Oxford English Texts)의 편집자들에게 주는 지시들이고, Taylor의 것은 single-volume(Oxford Standard Authors)을 위한 *H5*의 본문에 관한 작업이다. 요컨대, 이 책자는 Old-Spelling Oxford Shakespeare의 편집방침을 밝힌 McKerrow의 *Prolegomena*(113pp.)에 맞먹는 일종의 manifesto라고 볼 수 있다.

Wells는 서문에서 모든 독자에게 만족스러운 옛작가의 edition은 있을 수 없고, Shakespeare의 경우도 어느 일군의 독자들에게만 만족스러운 서로 아주 다른 노선 위에서 편집된 edition이 6개 정도 있다는 McKerrow의 말을 그의 modern-spelling edition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인용하였다. 이어 그는 edition들은 새로운 본문이론들이 나오고 학구적 발견들이 이루어지고, Shakespeare를 읽는 방법이 변화하게 되어 여러 가지 면에서 낡아버리게 된다고 했다. 새로 마련하는 두 가지의 Oxford Shakespeare edition을 McKerrow가 구상했던 것과는 달리 현대철자 edition으로 하는 것은 독자들이 'obsolete and archaic accidentals'에 의해서 혼란됨이 없이 극작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라고 했다. Cambridge의 *Editorial Guide*와 마찬가지로 Wells는 결정판적인 본문의 개념은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will o' the wisp'가 될 것임을 겸허하게 인정하면서 선배작가들로부터 봉사받은 것처럼 후세대에 봉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오직 기쁠 뿐이라고 했다.

McKerrow himself provided some justification for this apparent duplication of labour in the first sentence of his *Prolegomena:* 'there might, I suppose, be at least half a dozen editions of the works of Shakespeare executed on quite different lines, each of which, to one group of readers, would be the best edition possible.' To this we must add the fact of mutability. Editions grow out of date in various ways. New textual theories are propounded; scholarly discoveries are made: ways of reading Shakespeare change.

* * *

The newly proposed Oxford editions will be in modern spelling. This procedure, traditional in editions of Shakespeare, removes unnecessary barriers to understanding, making it possible for the reader to concentrate on the text itself, undistracted by obsolete and archaic accidentals of presentation. ...Suffice it to say that we shall be well pleased if we can serve the next generation

as well as we have been served by the scholars from whose work we have learned, and on which we build. ...we know that the concept of a definitive text is ultimately a will o' the wasp. ('Preface', pp. v-vii.)

어쨌든 New Cambridge Shakespeare와 Oxford Shakespeare는 모두 현대철자로 된 edition이 되겠지만 후자가 훨씬 더 현대화된 edition이 될 것임은 틀림없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심지어 'gaol'을 'jail'로 철자하기까지 한다고 한다.

Wells는 서문에서 일반적으로 훌륭하게 이루어 진 많은 Shakespeare edition들을 혐담하지 않겠으며, 보다 더 잘 할 수 있다는 오만한 자세를 나타내는 자기정당화는 않겠다(p. vi)고 선언했다. 그 때문인지 그는 Cambridge Shakespeare에 대한 비판을 별로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 선언에도 불구하고 Evans의 편집방침에 대해서는 그는 매우 신랄하다. 그는 앞에서 소개한 세 단락으로 된 Evans의 글 중에서 철자현대화원칙을 밝힌 첫 단락을 주로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

Wells는 'archaic and obsolete spellings'를 의식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 어떤 공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는 Walker가 피력한 다음과 같은 신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the advantage lies with the traditional practice of bringing spelling into line with current usage, since a gallimaufrey of ancient and modern contributes nothing to a critical appreciation of the differences between Elizabethan speech habits and ours.[28]

Wells는 Evans의 첫 단락을 전부 인용하고 'kind of linguistic climate'를 논박한다. 그는 셰익스피어가 작품활동하던 시기의 철자들이라고 해서 'a selection of Elizabethan spelling forms'를 존속시킨다면 주를 더 많이 달아야 할 뿐 별 이득이 없다고 했다. Riverside Shakespeare를 한번 펼쳤더니 *2H4*의 한 면[2막 2장과 3장(pp. 896-897)]이 나왔다면서 그는 여기에 존속시킨 ***kinreds***(=kindreds, 26행), ***idlely***(=idly, 29행), ***heckfers***(=heifers, 157행), ***Saint Albons***(=St. Albans, 168행), ***chevalry***(=chivalry, 2막 3장 20행) 등의 옛형태들이 무슨 소용이고 도움을 주는 것인지 의아해 한다. 이와 같은 정책은 'eccentricity'로 이끌며, 현대화의 목적을 무산시키는 그런 모호성을 낳는다면서 Wells는 철자를 통해서이든, 기타 다른 수단을 통해서이든 본문의 단어들이 갖고 있었을 엘리자베스 시대의 발음을 독자로 하여금 재구하도록 하는 것은 편집자의 목표의 일부는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고 Evans가 주장하듯 'insensitive levelling'을 초래하는 현대화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Wells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wordplay, scansion, rhyme 때문에 생기는 특수경우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28) Alice Walker, 'Some Editorial Principles with Special References to *Henry V*', *Studies in Bibliography* VIII (1956), p. 111.

I see no virtue in an attempt to suggest a 'kind of linguistic climate' (which was, of course, modern to Elizabethans). The preservation of 'a selection of Elizabethan spelling forms' has the practical disadvantage of creating a need for many more glosses than normal in a modern-spelling edition, most of them serving no purpose beyond a reassurance that the unfamiliar spelling in the text is not a misprint. A single opening of Riverside's 2 *Henry IV*, for example, includes *kinreds:* kindreds, *idlely:* idly, *heckfers:* heifers, *Saint Albons:* St. Albans, and *chevalry:* chivalry. The policy also leads to eccentricity and the kind of obscurity that defeats the end of modernization. It is no part of our aim to enable the reader to reconstruct an Elizabethan pronunciation of the texts, whether through spelling or other means. On the other hand, we certainly wish to avoid 'insensitive levelling', and to make provision for special cases created by, for example, wordplay, scansion, and rhyme. (p. 5.)

early text 들 속의 독특한 철자들은 설사 authorial 이 아니고 scribal 이나 compositorial 이라고 해도 그 당시의 linguistic climate 를 반영하므로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Evans 의 견해와 입장은 이 방면의 대가였던 W.W. Greg 가 그보다 32년 전에 이미 피력한 바 있었다.

For the critic modernization has no attraction in itself. So long as there is any chance of an edition preserving some trace, however faint, of the author's individuality, the critic will wish to follow it: and even when there is none, he will still prefer an orthography that has a period resemblance with the author's to one that reflects the linguistic habits of a later date.[29]

Greg 는 이어서 앞서 이미 인용한 바대로 ***banket*** 를 banquet 로, ***fadom*** 을 fathom 으로, ***murther*** 를 murder 로, ***vild*** 를 vile 로, ***wrack*** 를 wreck 등으로 현대화하는 것은 'sheer perversion' 이라고 했다. Bowers 역시 이와 같은 Greg 의 말을 들면서 그에 동조적인 말을 이렇게 했다.

Even if we had no positive evidence that the accidentals of an author have been transmitted in any significant manner, there is still reason for a critic to prefer the form given to a text by a contemporary printing-house instead of the form of a modernization.[30]

Greg 와 Bowers 의 말에서 유의할 점은 'for the critic' 혹은 'for a critic' 이라는 조건을 단 사실이다. 일반대중독자를 위한 edition 이 아니라 학자독자를 위해서는 독특한 Elizabethan spelling 들의 보존이 바람직하다는 함축인 것이다. Evans 의 Riverside Shakespeare 가 일반독자를 위한 것이 아닌 semi-popular edition 이란 점에 비추어 볼 때 Wells 의 비판은 공정성을 결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 하면 그는 일반독자를 위해 전면 현대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과 표준으로 Evans 의 부분현대화를 비평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양

29) Greg, pp. li-lii.
30) Bowers, p. 130.

자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며, 그들 나름의 정당성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이다. 이 상이한 입장들의 문제를 Bowers는 본문을 부분적으로 현대화하든지 전면적으로 현대화하든지 현대화는 text를 'distort' 한다고 매우 합당한 평을 한 바 있다.[31]

VI

그러면 구체적으로 Wells 자신이 철자현대화 내지 전면현대화의 edition을 이룩하려는 방침과 구상이 어떤 것인지 그 골자를 추려보겠다.

1. semantically indifferent variants와 semantically significant variants

단어들은 *OED*의 headword(lemma)에 나타나는 대로 철자하는 원칙을 지키되 obsolete word의 경우는 *OED* form으로 나타낸다—***peise, chopine, kecksy, sutler, eisell*** 등. 오늘날에도 아직 사용되고 있는 단어의 경우, 그것의 Elizabethan spelling variant들이 'insignificant' 할 때도 역시 문제가 없다. 예를 들면, ***carot, carote, carotte***는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소위 indifferent variant들이기 때문에 현대표준형인 ***carrot***로 현대화하면 되기 때문이다.

현대영어단어에 ***grey***와 ***gray***와 같은 indifferent variant들이 있듯이 엘리자베스 시대의 영어단어에는 indifferent variant가 많았다. 그런데 일부 변형들은 semantic difference는 없지만 'shades of significance'를 갖고 있었다. 이 경우 편집자는 현대철자를 사용하기 보다는 그것들을 존속시키거나 표준화해야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변형들에 붙어 있는 'significance'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단어들은 semantically indifferent variant들과 semantically significant variant들이라는 두 범주로 나누어 고려한다.

(1) semantically indifferent variants—지금까지의 편집자 대부분이 단순한 변형철자들을 넘어서는 older form들이라는 이유로 존속시켜 온 단어들의 철자는 모두 현대화되어야 한다. ***banket, caitive, murthered, fadom, burthen, arrand, accompt, venter, tottered, apricock, bankrout, margent, subtile, vild, swound*** (혹은 ***sound***), ***shrieve*** 등은 모두 banquet, caitiff, murdered, fathom, burden, errand, account, venture, tattered, apricot, bankrupt, margin, subtle, vile, swooned, sheriff'로 현대화한다. 단 control-text[32]의 form이 표준영어에서는 이제 없어진 굴절(inflection)을 나타낼 때 이것은 변형철자들이 아니고 'genuine' form이므로 존속된다. ***eyne*** 혹은 ***eyen*** (=eyes), ***spake*** (=spoke), ***forsook*** (=forsaken), ***mistook*** (=mistaken), ***arose*** (=arisen), ***holp*** (=helped) 등이 그 예이다.

일부 변형들은 변형발음을 나타내고, 그것을 암시하지만 그렇다고 early spelling들을 존

31) *Ibid.*, p. 131.

32) Wells는 McKerrow가 처음 사용한 copy-text를 피하고 control-text를 사용하고 있다. McKerrow는 편집자가 그의 edition의 바탕이 되는 text를 copy-text로 부르고 있는데 Wells는 'the most authoritative text'의 뜻으로 control-text를 사용하고 있다.

속시킬 수 없다. 예를 들면, Evans 같은 편집자는 *buckrom, strook, St. Albons, sate* 등을 그대로 보존하였지만 이것들은 모두 현대화된다. 또 *compt, accompt, conceipt, deceipt* 등도 반드시 당시의 발음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어서 현대화되며, *ile* (=isle), *det* (=debt), *detter* (=debtor) 등 phonetic spelling 들도 모두 현대화된다. 단, 음절 수에 영향을 주는 aphetic (頭母音 소실) and syncopated (中略) form 들은 그대로 보존된다. 즉 astonish, against, alarum 의 aphetic form 인 *stonish, gainst* (혹은 *'gainst*), *larum* 그리고 ignominy 와 candlestick 의 syncopated (혹은 shortened) form 인 *ignomy* 와 *canstick* 는 원형대로 존속시킨다.

(2) semantically significant variants—(가) 셰익스피어 시대는 변형철자들로서 존재했으나 그 후에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 단어들, 예를 들면, *courtesy* 와 이것의 변형들인 *court'sy* (*e* 의 elision), *curt'sy, curtsy* (이것들은 *o* 와 *e* 의 elision), *cursie* (medial *t* 의 생략) 는 문맥에 따라서 'good manners' 의 뜻도 되고, 'obeisance' 의 뜻도 되었다. 그러나 후에는 courtesy 는 good manners 의 뜻만으로, curtsy 는 obeisance 의 뜻만으로, 쓰이게 되었다. 이 경우의 해결책은 그것이 문맥에 의해서 현대의 *courtesy* 인지, 현대의 *curtsy* 인지가 구별될 때는 그것에 따라서 철자를 현대화하고 구별되지 않을 때는 primary (혹은 dominant) sense 의 철자를 채택하고 이것의 alternative interpretation 혹은 보충적 풀이를 주석으로 다는 것이다. *mettle-metal, travel-travail* 도 마찬가지로 처리한다.

(나) 현대의 *quote* 에 해당하는 *coat(e), cote* 의 변형처리 문제. Evans 는 *cote* 가 control-text 의 것일 때는 존속하였으나 이것을 *quote* 로 현대화한다. 그 이유는 cote 를 보존할 경우 quote 의 뜻임을 주석해야 하는데다가 'pass by', 'outstrip' 란 아주 다른 뜻으로 사용된 *cote* ('we coted them on the way', *Hamlet* 2. 2. 315)와 구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 어원적으로는 상이한 단어들이 같은 철자로 혼용된 경우. *ingenious* 는 'cleverly contrived, showing cleverness of invention' 의 뜻이고, *ingenuous* 는 'frank, artless, liberal, 가문좋은 사람에 알맞는' 등의 뜻이므로, 이 두 단어는 서로 다른 어원과 다른 뜻을 갖고 있으나 철자변형들로 간주될 수 있을 정도로 당시 혼용되었다. 그러나 'A course of Learning, and ingenious studies' (*Shrew*, 1. 1. 9)에서 'ingenious' 를 *ingenuous* 로, 'My ingenuous Instrument' (*Cym.* 4. 2. 187)에서 'ingenuous' 는 *ingenious* 로 문맥에 따라 현대화 하면 된다.

(라) control-text 의 철자가 작품을 쓴 당시에는 구분되어 사용되었으나 그후 현대형속에 흡수된 *mo*(혹은 *moe*), *enow* 등의 처리문제인데, *moe, mo* 는 'more in nnmber' 의 뜻 곧 수 (countable)에 쓰였고, *enow* 는 enough 의 복수형으로 쓰였다. 'We haue willing Dames *enough*' (F *Macbeth* 4. 3. 73)와 'Sing no *more* ditties, sing no moe' (Q *Much Ado* 2. 3. 65) 등의 early text 들이 증거하듯 본래의 용법이 그 당시 일률적으로 언제나 준수된 것이 아니므로 *mo* 혹은 *moe* 와 *enow* 를 more 와 enough 로 각각 현대화 한다.

그러나 다음 사항들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original spelling을 존속시키거나 현대 독자에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번안한다.

첫째, conventionalized stage dialect. *Lear*의 4막 6장에 나오는 Edgar와 Oswald의 대화, low-life, uneducated character들, 외국인 등의 발음과 어투로 된 단어의 모양들. *MV* 2.2. 147에 나오는 Launcelot의 *a leuen* (Q1, F)은 eleven으로, Edgar의 *cham*은 *'cham* (=I am)으로 바꾼다.

둘째, characterizing touch. *Much Ado* 3.3. 21의 Dogberry의 *lanthorne*은 그대로 보존해도 좋지만 F *2H6* 2.3. 25의 *Lanthorne*은 왕이 말하는 것이 아닌 곧 성격을 나타내는 특징적 touch가 아니므로 lantern으로 현대화해야 한다.

세째, 독자로하여금 뜻을 용이하게 파악하도록 해줄 경우에는 *OED*의 형 대신에 전통적인 옛철자를 채택하는 것이 좋다. breeze (=gadfly)를 breese로, impale (=surround)을 empale로 하는 것 등이다.

네째, *an*이 if의 뜻으로 F에 사용된 예는 *an't* 외에는 오직 한번 뿐이다. Shakespeare와 그의 동시대인들은 *and*를 if의 뜻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그 후 17세기에는 *an*이 if의 상당어로 쓰이기 시작하여 18세기에 보편화되었고, 그 결과 이것은 distinctive traditional spelling으로 굳어졌다. J.C. Maxwell은 New Arden *Titus*에서 이 관행적인 철자를 본래의 철자 *and*로 복귀시킬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ifs and ans'란 표현이 아직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Maxwell의 'the usage is completely obsolete'는 사실이 아니므로 *an*을 쓰든 *and*를 쓰든 그것의 뜻이 if임을 주석에 밝혀야 한다. 따라서 뜻이 분명히 if일 때는 독자의 이목을 끄는 잇점을 지닌 *an*으로,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and* 그대로를 보존시킨다.

다섯째, 때로는 wordplay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옛철자를 존속시킨다.

This *lanthorn* doth the hornéd moon present. (*MND* 5.1.233)

He hath the *horn* of abundance...though he have his own *lanthorn* to light him. (*2H4* 1.2. 42-5).

여섯째, metre 관계로 archaic form의 존속이 필요하다—Our court shall be a little *academe* (*LLL* 1.1. 13). indifferent variant들인 *thorough*와 *through*가 운문 속에 쓰였을 경우에도 그대로 존속시킨다.

일곱째, *further/murther*, *confess/decesse*, *fraud/o'estrawed*와 같은 rhyme을 고려하여 original spelling을 존속시킨다. 단 *so*와의 rhyming을 위해서 *mo(e)*를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는 없다.

여덟째, original spelling이 어떤 의미있는 모호함을 지닐 때도 그것이 보존된다.

Banquo는 마녀들의 예언이 맞아들어가고 있어서 Macbeth가 큰 기대를 갖게 된 나머지 자실망연한 상태에 빠져 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

My Noble Partner
You greet with present Grace, and great prediction
Of Noble hauing, and of Royall hope,
That he seemes wrapt withall.... (F *Macbeth*, 1.3. 54-7)

Muir (New Arden), Wilson (New Shakespeare), Evans (Riverside) 등은 F의 'wrapt' 대신에 Pope가 처음 현대화한 rapt (=lost in reverie, carried out of himself)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 'wrapt'는 rapt가 암시하는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을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즉 'wrapt'는 문제의 작품에서 나오게 되는 'borrowed Robes', 'strange Garments' 등과의 관련에 의해서 'entangled, caught'의 뜻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해결방법은 dominant meaning을 지닌 현대철자 곧 rapt를 취하고, 독자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그 추가적인 의미를 주석으로 알리는 것이다.[33]

요컨대, Wells의 철자현대화 원칙은 뜻의 변화를 지니지 않는 변형들은 거의 언제나 현대화되어야 하고 뜻의 변화를 주는 변형들은 보다 조심스럽게 현대화한다는 것이다.

2. Contractions, Elisions, 및 Metrical Markings

일반적으로 control-text들의 축소형들은 그것들이 본시 식자공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단 현대용법에 따라 apostrophe는 넣는다. 따라서 control-text의 'We will', 'We'll'은 'We'll', 'We will'로 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 'Wee'l' 과 'Ile'은 물론 'We'll' 과 'I'll'로 각각 현대화한다.

*fastned, battred*에서 보듯 unsounded medial *e*가 생략된 경우와 과거분사의 어미—*ne* (*stolne, falne*)는 모두 철자변형으로 취급하여 fastened, battered, stolen, fallen으로 'spell out' 하거나 현대화한다.

동사의 2인칭단수의 어미 —st, —'st, —est는 운문 곧 metre와 관계될 때만 —est로 하고 기타는 모두 —'st로 하되 *canst, couldst, mayst, wouldst, shouldst, hadst, didst*는 그대로 둔다. 산문에서는 —est로 하되 —st가 용인되는 단어는 제외한다.

*whether, ever, never, over*와 같은 단어들은 축소형으로도 나타나고 축소되지 않은 형태로도 나타나지만 'syllabically regular lines'를 위해, Pope가 했듯이, 언제나 늘리거나 축소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셰익스피어의 versification은 'not primarily syllabic'이기 때문이다.

a'th, and't, in't, to't, to'th'Capitoll, upon's, th'fire, By'th', i'th 등의 축소형들이 F에 처음 활자화된 작품들 특히 *Coriolanus*와 *Antony*에서 눈에 많이 띄고 있는데, *O', i', th', t'* (=to) 등과 같은 소위 'clippings'는 Pandarus와 같은 말 많은 성격들의 특징적인 산문대

33) Stanley Wells, *Modernizing Shakespeare's Spelling*, etc.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1979), pp. 6-18.

사에 나온다. 이것들을 늘릴 필요는 없으며, 다만 "to'th'"에서 'to' 다음의 apostrophe와 "By'th'"에서 'By' 다음의 apostrophe는 빼버린다.

'he'를 뜻하며, 'he'의 unaccented form인 *a*는 불만스럽지만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다. 왜냐 하면 이것을 Cockney를 연상하여 *h*가 탈락된 *'e*로 표시한다면 그릇된 인상을 줄 것이며, 그렇다고 Alexander처럼 그것을 'ha'의 축소형으로 쳐서 *'a*로 하는 것도 어떤 현대(혹은, 그밖의 다른) 단어의 약자가 아니므로 전적으로 만족스럽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a*가 가장 덜 불만스럽다.

과거와 과거분사의 어미 —ed는 한 음절을 구성할 때 (sounded 혹은 syllabic)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 (not sounded 혹은 nonsyllabic)도 있다. 일부 편집자들은 syncopated form (nonsyllabic)을 —'d로, unsyncopated form (syllabic)을 —ed로 나타낸다. 즉 'Some shall be pardon'd and some punished.' 일부 편집자들은 syncopated form을 —ed로, unsyncopated form을 —èd (혹은 —éd)로 나타낸다. 즉 'Some shall be pardoned and some punishèd.'

이상의 두 가지 방법에는 일장일단이 있다. 현대독자는 'pardon'd'의 경우 apostrophe가 있든 없든, 즉 어미를 —'d로 하지 않고 —ed로 해도 이를 두 음절로 읽기 때문에 apostrophe는 불필요하며, 'punished'의 경우 그것을 역시 두 음절로 읽기 때문에 위의 예처럼 세 음절로 읽어야 함을 유의시키기에는 —ed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첫번째의 방법(—'d; —ed)은 크게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한편 둘째 방법(—ed; —èd/éd)은 현대의 것과 다른 syllabication을 요하는 단어에 시각적인 주의를 환기시키는, 따라서 첫째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는, 장점을 갖고 있어서 그런대로 만족스럽다. 물론 산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현대형이 일률적으로 사용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

'th'art'와 'thou'rt'; 'y'are'와 'you're'; 'th'are'와 'they're'는 각각 발음상으로 아무런 차이도 없는데다가 설사 있다고 해도 뜻에 영향을 주지 않는 accidental한 것이므로 현대철자 edition에서는 표준현대형인 후자들 곧 thou'rt, you're, they're를 채택한다.

어떤 단어는 축소형이 아닌 full form으로 볼 수 있는데도 축소형으로 잘못 생각할 소지가 있다. *deule*이 그 예의 하나인데, Riverside의 편집자는 이것을 *devil*의 축소형으로 잘못보고 *dev'l*로 인쇄했다. *deule*은 devil로 현대화해야 하는 것이다.[34]

3. 고유명사의 철자현대화

첫째, metre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고유명사의 현대형태를 채택한다. 고형들은 발음의 accidental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Bullingbrooke***는 ***Bolingbroke***로, ***Gertrard*** (*Hamlet* Q2)는 ***Gertrude***로, ***Bristow***는 ***Bristol***로 한다. Hunter(New Penguin)와 Evans 등이 취한 옛철자형의 ***Birnan*** (*Macbeth*)은 ***Birnam***으로 한다.

둘째, 셰익스피어의 본문 외에는 상응하는 현대형이 없을 때는 early text들 중에서 가장

34) *Ibid.*, pp. 18-27.

흔한 철자를 택하거나 마지막(final) 글자들 혹은 발음안되는 글자들을 생략함으로써 현대화한다. *Banquoh*(F)를 *Banquo*로, *Fortinbrasse*를 *Fortinbras*로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세째, 고형이 변형이 아닐 때는 그것을 그대로 취한다. 즉 *Holmedon*(두 음절)과 같은 고유명사는 현대형 *Homildon*이나 *Humbleton*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대로 존속시킨다.

네째, *R2*(Q1)에서 *Hereford*는 23번, *Herford*는 11번 나온다. 이 경우 metre 상의 strain이 거의 관계되어 있지 않으므로 *Hereford*를 채택한다.

다섯째, Evans가 채택한 *Harflew*는 *Harfleur*로 하고 *Rone*(혹은 *Roan*)는 *Rouen*으로, *Callice*는 *Calais*로 한다.

여섯째, metre 상의 이유로 옛 철자를 그대로 취한다. 이에 따라 *H5*의 *Delabreth*는 그대로 존속시키고 이것의 현대형인 *D'Albert*로 대체하지 않는다.

보다 복잡한 경우는 *Marseilles*(현대불어형은 *Marseille*)로서, 세 음절이 필요한 운문(F *the Shrew* 2.1. 367; *F All's Well* 4.4.9)에서 *Marcellus*로 철자되어 있다. 편집자는 F의 것을 취하고 주석을 달아도 좋고 아니면 현대영어발음도 세 음절이므로 *Marseilles*[ma:séilz]를 취해도 좋다.[35]

4. 구두점

early text들이 얼마나 셰익스피어 자신의 구두점을 재생하였는지, 또 그의 시대의 관행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control-text의 구두점은 현대독자에게는 좀 엉뚱하고, 오도적이어서 변경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현대의 구두점 관행이 매우 융통성이 있어서 사람마다 같기를 바랄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현대화된 edition들의 구두점이 일치하는 경우는 우연에 의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control-text의 구두점은, 더욱이 그것이 authorial인지 scribal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존중될 수는 없다. 결국 control-text의 semicolon, colon, exclamation mark는 필요할 때만 취해야 하며, 편집자들은 academic text books에서 보다는 현행의 literary and dramatic practice에서 모델을 찾아 그것으로 early text들의 구두점을 대체시키는 것이 좋다.[36]

VII

이상에서 우리는 S. Wells의 현대화원칙들의 골자를 개관하였다. 그는 확실히 현대화의 많은 문제점들을 누구보다도 많이 분류해서 길게 논의하고 여러개의 훌륭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그는 지금까지의 어느 편집자보다도 셰익스피어의 early text들을 더 많이 현대화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의 글은 new prolegomena를 제공하는데 실

35) *Ibid.*, pp. 27-31.
36) *Ibid.*, pp. 31-4.

패했고, 미해결로 남긴 문제들도 한 두 개가 아니며, 그가 목표로 한 전면현대화를 달성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외사항들을 두고 있다. 10 여개 이상의 예외사항들과 ***eyn(e)***, ***spake***, ***mistook***, ***forsook***, ***holp*** 를 존속시키고, ***stonish***, ***gainst***, ***larum***, ***ignomy***, ***canstick*** 등의 'aphetic and syncopated form' 들을 그대로 보존한 것은 역시 전면적인 현대화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고 보겠다.

부분적인 현대화이든 전면적인 현대화이든 그 나름의 어려움과 폐단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부분적인 현대화는 현대 독자로 하여금 일부 단어들을 early text의 변덕(vagaries)에 따라서 두 가지로 발음하도록 강요하여 보통은 비의도적이고 사용되지 않던('unintentional and inoperative') 요소들을 의미있는 것으로 구분케 하는 폐단을 만든다. 동일한 등장인물의 대사속에 ***murther*** 와 ***murder*** 가 혼재할 때, 다시 말하면, 그 행들을 읽는 작가 자신이나 암송하는 Elizabethan actor 자신도 분명히 구분하지 않았을 variant orthographic form 들을 현대독자로 하여금 발음상으로 구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확실히 우스운 일이 될 것이다.

한편 전면적 현대화는 그것대로 문제를 지녔음은 재언을 요하지 않지만 특히 부분적 현대화의 경우에서 보다도 더 의미있는 증거(significant evidence)를 파괴하거나 숨기는 결과를 빚을 공산이 큰 것이다. 또 현대화작업이 제아무리 잘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면 현대화의 것이든 부분 현대화의 것이든 modern-spelling edition은 학부학생을 포함한 각급학교 학생들을 위한 commercial necessity에 불과하고, text의 특수점들을 관심의 대상으로 삼는 서지학과 본문학의 학도나 'serious student' 에게는 만족할만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상에서 셰익스피어 편집상의 문제점들과 어려움들을 말했다. 요컨대 셰익스피어 편집은 고도로 전문화된 산업인 관계로 상당한 self-discipline과 권위있는 신뢰도를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이 과업을 자기의 재능발휘장소 정도로 알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서투르고 어설픈 편집자는 본문적, 비평적 연구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편집의 책임은 막중함을 알게 된다. 셰익스피어의 현대화된 popular edition은 그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modernizer들은 책임감을 갖고 이 수요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일반 대중을 위해서는 Shakespeare의 text는 현대화될 수록 좋다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비록 명실상부한 'complete and absolute modern Shakespeare edition' 이 가까운 장래에 나올 가망은 보이지 않지만, Wells의 현대화된 edition을 계기로 하여 앞으로 보다 더 진일보하고 현대화된 edition이 나올 것이라는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Abstract**》

Problems of Modernizing Shakespeare's Spelling

Kyung-shik Lee

Modern-spelling editions as opposed to old-spelling editions are divided into two kinds: one is partially modernized texts or semi-popular editions and the other fully modernized texts or popular editons. A complete and absolute modern-spelling Shakespeare edition has not yet appeared because full modernization involves not a few difficult problems.

Some old-spelling forms are easy to modernize. Words like *lanthorn(e)*, *murther*, *parfit*, and *vild* whose interchangeable alternative forms *lantern*, *murder*, *perfect*, and *vile* also occur within the same original texts can be modernized without any loss unless rhyme is involved. It is also easy to modernize the past tense and past participial ending——ed/——'d to——ed when it is non-syllabic and to ——éd when syllabic.

In Shakespeare's day a number of words were often spelt differently in accordance with a compositor's spelling preferences, text-space, type-shortage, or the exigencies of line justification. For example, *hear* was spelt *hear*, *heare*, and *here; then* as *then* and *than; whose* as *whose* and *who's; to* as *to* and *too*. Even these cases which demand a choice between two exclusive meanings can be easily modernized because context makes the choice quite easy.

But difficulty arises when the ambiguity of an original edition embraces two modern words which are not clearly related in form or sense. The word *trauail*, for instance, embraces two modern words *travail* and *travel*. No matter which one the editor chooses, he will need an annotation. Some words with final *s* raise a similar difficulty. *Cats* in an Elizabethan text may stand for modern *cats*, *cat's cats'*, or *cat is*, and the sense of a passage can bear more than two of these exclusive meanings.

In his Riverside Shakespeare edition which is widely recognized as the definitive edition as far as semi-popular Shakespeare editions go, Evans preserves 'a selection of Elizabethan spelling forms that reflect, or may reflect, a distinctive contemporary pronunciation' like *fift* or *sixt* (fifth or sixth), *Bullingbrook(e)* (Bolingbroke), *conster* (construe), and *vild* (vile) because those forms suggests, if not Shakespeare's own preferences, 'the kind of linguistic climate in which he wrote' and this approach of his avoids, he said, 'the unhistorical and sometimes insensitive levelling that full-scale modernization (never consistent itself) imposes'.

In 1978 Oxford University Press launched a project for a modern-spelling Oxford Shakespeare with Stanley Wells and Gary Taylor as General Editor and Associate General Editor respectively. Wells made public his modernizing principles and method in his *Modernizing Shakespeare's Spelling* published in book form in 1979 together with Taylor's *Three Studies in the Text of 'Henry V'*.

Wells is quite sure that he sees 'no virtue in an attempt to suggest a 'kind of linguistic climate' and that he is capable of modernizing Shakespeare without committing an 'insensitive levelling' by making provision for special cases created by wordplay, scansion, rhyme, and so forth. He also sees no advantage in preserving 'a selection of Elizabethan spelling forms' which would create a need for many more glosses. What he proposes to do is to modernize almost all the semantically indifferent variants (like *banket/banquet*) and as to semantically significant variants (like *courtesy/curtsy/court'sy/curt'sy/cursie*, *metal/mettle*, and *travel/travail*) where Shakespeare's use is significantly ambiguous, he is to 'adopt the primary sense, and annotate'. But he is to retain stage dialects and those old spellings which 'helps the reader to see that a word is not what he might otherwise suppose'. He also refuses to modernize 'sallets' to 'salads' in Hamlet's 'no sallets in the lines to make the matter savoury', for then we lose the sense of 'something tasty' and mar metre and rhyme as well. Aphetic forms like Edgar's *cham* (=Ich am) and forms of a characterizing touch and those of representing the speech of uneducated characters, foreigners, etc. are also preserved.

Wells will modernize such proper names as Bullingbrook(e), Gertrard, Chatillion, Alanson, Rone (or Roan), Callice which have all been retained by Evans. As to the past tense and past participial ending *ed*, he prefers the method of representing the syncopated form by ——ed and the unsyncopated form by either ——èd or ——éd to that of representing the former by ——'d and the latter by ——ed. When these endings occur in prose he means to print the normal modern form.

On the whole, Wells' proposal with its considerable number of exceptions does not live up to his ambition for a fully modernized Shakespeare edition although there can be no doubt that he will modernize Shakespeare as fully as he can and certainly more than any one has ever done so far.

In conclusion, there could be no doubt that Wells' Oxford edition will be a big step forward to a complete and absolute modern Shakespeare edition although it is not likely to come out in the near future.